



제3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 3명 시상

방송 잘하는 올해의 아나운서 KBS 윤인구 · 오유경(아침마당), tbs 송정애(좋은 사람들) 선정

임국희 회장 '방송 잘하는 후배 많아 수상자 선정에 어려움 많았다'며 즐거운 엄살

6월 1일 여의도 열린 정례 모임에서
염용석 아나운서연합회장이 만찬 제공

KBS 윤인구 · 오유경, tbs 송정애
아나운서가 방송 잘하는 올해의 아
나운서로 선정되어 6월 1일 오후 6
시 30분 여의도 열린 정례 모임에서
제3회 황금메아리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 임국
희)은 아나운서답게 방송 잘하는 후
배들이 너무 많아 고심 끝에, KBS
<아침마당>의 윤인구 · 오유경, tbs
<좋은사람들>의 송정애 아나운서
등 3명을 선정해 '제3회 황금메아리
상'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2면에 수상 소감

매년 연말 모범 아나운서에게 주
는 <아나운서클럽상>과 함께 제8대 임국희 회장의 취
임을 맞아 2015년 상반기에 제정된 황금메아리상 제1
회 수상자는 KBS TV <황금연못>의 김홍성, SBS 라
디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유영미, 제2회 수상자는
OBS TV <OBS초대석>의 홍원기, CBS 라디오 <탈탈
라>를 진행하는 이명희 아나운서였다.

47명이 참석한 정례 모임에서 임국희 회장은 "황금메
아리상 시상식도 겸한 자리다. 수상자들을 축하한다. 좋
은 방송에 매진해 국민을 즐겁게 해달라."라고 인사했다.
이어 정홍숙 회원의 시 암송 모은숙의 '나의 별'을 축
시로,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이 펼쳐졌다.

윤인구 아나운서가 "모시고 일했던 선배님들 앞에서
상을 받으니 감개무량하다. 방송국 출입을 '아침마당'
FD로 시작해, 지난 6년간 역대 진행자 중 가장 많은 3
명의 여 MC, 이금희, 엄지인, 오유경 아나운서와 방송
해왔다. 앞으로 아나운서의 미래를 보고 열심히 하겠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이가희 안주희 남궁미 백연숙 임화숙 송정애 윤인구 오유경 김채영 김은영 윤희자 주시은 이후재 이인권 정연호 황량 김상준 박찬숙 전우벽 김규홍 이해옥 정홍숙 이세진 배덕환 맹관영 최만린 임국희 황우경 전영우 정영희 박민정 전찬희 이현경 염용석 김관동 김병훈 김준우 김지현 황인우 이형균

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자, 좌중에선 "말 잘한다!"라
는 환호가 쏟아졌다.

이에 "말 잘하는 윤인구 아나운서 옆에서 손가락 얹고
쉽게 방송하고 있다."라며 운을 댄 오유경 아나운서는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도 되나 싶다. 말은 지 6
개월 만에 상을 받음은 윤인구 · 오유경의 <아침마당>이
자리 잡은 증거가 아닐까?"라며 기뻐했다.

송정애 아나운서는 "유명한 <아침마당> 진행자들과
함께 상을 받아 기쁘다. 제가 입사했을 때 임국희 회장
님이 맡았던 시간대 방송을 하고 있다. '괜히 상 줬다' 하
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찬숙 부회장은 "황금메아리상 수상자들, 마이크의
증인이 되신 여러분이 태환지폐처럼 사회를 빛낼 것이
라 믿는다."라며 축하했다.

최만린 고문은 "한 자리에서 마음을 나누는 오늘, 아
나운서들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클럽하우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다.

김상준 감사는 윤지영 전 회장이
제공한 와인으로 축배를 들며 '아나
운서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건
배사를 했다.

지난 3월 제17대 한국아나운서연
합회장으로 취임한 염용석(SBS) 회
장은 선배들을 첫 대면한 자리에서
"새로 바뀐 아나운서저널의 표지처
럼 단순하고 산뜻하게 이끌어가겠
다."라고 인사한 뒤 식대를 내겠다
는 깜짝 발표로 큰 기쁨을 주었다.

KBS 김관동 실장은 "저희 <아침
마당> 진행자에게 상을 주셔서 감사
하다. 전영우 선배님이 큰 책을 내셨
다고 책을 주셨는데, 좋은 방송 하

기 위해 아나운서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CBS 김은영 부장은 "김필원 협회장이 산티아
고 순례를 마치고 7월에 돌아올 예정이다. 저는 아나운
서저널에 실렸듯 건강을 위해 운동 중인데 성과가 있
다. 원하시면 비결을 나누겠다."라고 말했다. tbs 김병
훈 부장은 "황금메아리상을 수상한 <송정애의 좋은 사
람들> 애청자다. 제목처럼 좋은 사람들이 이야기라, 힐링
하러 직접 스튜디오로 가서 들곤 한다."라고 말했다.

cpbc 김지현 협회장은 "마라톤을 두 번 완주한 적 있
다. 30대 부장 겸 협회장으로서 2017년을 완주할 수 있
도록 힘을 실어 달라."라고 말했고, OBS 김준우 협회장은
"OBS가 대지주를 잘못 만나 고생하고 있다. 저도 방
송 현장을 떠난 지 8개월, OBS 아나운서들의 건투를 빌
며 우울한 소식이지만 선배님들의 기를 받고자 전해드린
다."라고 말했다. SBS 신입 이인권, 주시은 아나운서는
전인권의 '걱정말아요, 그대'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클럽 봄철 야유회 파주 헤이리서 열려 최만린 조각 스튜디오 황인용 뮤직스페이스 카메라타 방문



최만린 고문의 조각 스튜디오 앞에서 함께한 회원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보길, 정도영, 송현식, 장유진, 정영희, 정홍숙, 최화숙, 이성화, 황우경, 임국희, 최만린, 채영신, 배덕환, 윤영중, 민병연, 정연호, 전찬희, 윤성원, 김규홍, 이규향, 황인우, 차인태, 조영숙, 조서영, 안희재, 박민정, 전옥수, 이해옥, 백연숙

아나운서클럽 2017 봄철 야유회가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서 있었다.

임국희 회장 취임 후 2015년 상암동 MBC 신사
옥 견학, 2016년 경남 창원 1박 2일 여행에 이은 이
벤트인지라, 김규홍 부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임 회장이 회사한 100만 원을 바탕으로 참가자 전
원에게 경품 마린 등 즐거운 봄나들이가 되도록 만
반의 준비를 했다.

다. 성선경 부회장은 불참하면서도 회원 전원에게
동천에서 만든 고급 스포츠 모자를 증정했다.

일정은 화가인 한상구 헤이리 예술위원장의 안내
로 예술마을 버스투어 후 10시 50분 한국 추상 조
각의 거장 최만린 고문의 스튜디오 방문, 점심 식
사, 오후 1시 50분부터 황인용 회원의 카메라타에
서 열린 특별 음악감상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3면에 계속

문재인 대통령 시대 함께 문을 연 아나운서 출신들도 주목 받아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발탁



고민정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며, 함께
한 아나운서들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9일 열린 제19대 대선에서
당선,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의 아나운서 출신 중 고민정(전 KBS)
회원이 5월 18일 청와대 부대변인에 임
명되었다. 고 회원은 지난 2월 KBS를
퇴사한 후 일반인 인재 제1호로 영입되

어 민주당 경선 캠프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으나 공동선
거대책위원장으로 대선을 이끈 박영선(전 MBC) 의원은 문
대통령의 특사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레닌 모레노 에콰
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친서를 전달했다.

한편 2005년부터 줄곧 언론인 신뢰도 1위를 기록 중인
jtbc 뉴스룸 앵커 손석희(전 MBC) 회원은 박 전 대통령 탄
핵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해 제19대 대선의 물꼬를 텃으며,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낸 강경화 외무부장관 후보자
는 아나운서클럽 강찬선(전 KBS) 초대 회장의 딸로 화제를
모았다.

다음 모임은 오는 9월 6일(수) 오후 6시 30분, 열빈



제3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



KBS 윤인구 <아침마당>

1997년 KBS 공채 24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TV쇼 진품 명품> <청춘 신고합니다> <도전 골든벨> <러브 인 아시아> <생방송 오늘> <세상의 아침> <사미인곡> <도전 지구탐험대> <쇼 파워 비디오> <풍물기행 세계를 가다> <연예가중계> <영화 그리고 팝콘> <진미대탐험> <색다른 TV> <여성공감> 등을 진행했으며 2013년부터 <아침마당>을 맡고 있다. 숙명여대와 성신여대에 출강했으며, 한국어 연구사업 팀장을 지냈고 현재 제19대 KBS 아나운서협회장이다. 국방부 장관상(2005), 한국어문상 특별상(2012)에 이어 지난해 한국아나운서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 무서웠던 선배들께서 주신 상이기에 더 영광스럽다

선배님들로부터 칭찬받기란 여간해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KBS 아나운서실에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합평회를 통해 선배들에게 평가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초년병 시절에 들었던 추상 같은 호령이 사라진 지는 오래지만 후배들 입장에선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 가슴을 후벼 판던 선배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양분이 되어 저는 오늘도 시청자들 앞에 섭니다. 언젠가부터 그 무서웠던 선배님들께서 조금씩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TV에서만 보았던 전설 같은 대선배님들께서 제 프로그램을 즐겨보신다고 귀뜸해 주십니다. 오늘 그런 선배님들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름도 예쁜 '황금 메아리상'.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제가 방송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좋은 선배의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주신 상이기에 큰 영광이면서 몹시 기쁩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저의 목소리가 메아리 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국희 회장과 수상자들

KBS 오유경 <아침마당>



1994년 공채 20기로 입사, <생로병사의 비밀> <시사투나잇> <소비자 고발> 등을 진행하다 2012년부터 5년간 글로벌센터에서 한류문화사업을 담당하며 사내기업 설립 등 색다른 경력을 쌓고 지난해 6월 아나운서실에 복귀했다. 현재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인 <아침마당>(1TV월~금, 오전 8:25~9:30)과 라디오 <오유경의 해피타임 4시>(2R 월~일, 오후 4:00~6:00)를 맡아 다양한 인생과 삶의 지혜를 진술하고 따뜻하게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있다. 한국프로듀서상 TV부문 올해의 진행자상(2004),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2005)을 비롯해 한류문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문화부장관상(2012)과 외교부장관상(2012)을 수상했다.

황금메아리상을 든든한 격려라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겠다

좀 엉뚱하게도 한류추진단으로 자진해 파견 나가 5년 만에 아나운서실에 복귀하여 <아침마당>을 진행하게 된 것만도 큰 행운이었기에, 6개월 만에 선배님들께 이렇게 칭찬과 격려가 담긴 상을 받게 될 줄은 기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방송을 준비하며 이금희 선배를 떠올립니다. '1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한결같이 절제하고 노력하며 이 자리를 지켜왔구나.' 새삼 존경스러워서입니다. 1991년 5월 20일 시작한 <아침마당>을 거쳐 간 11명 진행자들의 노고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침마당>의 상징과도 같은 이금희 선배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선배님들께서는 <아침마당>의 진행자인 윤인구와 저 오유경에게 황금메아리상을 주셨습니다. 2MC의 생명은 호흡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있기에 물과 기름이 아닌 실과 바늘이 되어 삶의 희로애락을 엮어가겠습니다. 황금메아리상을 선배님들의 든든한 지원이자 격려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용석 아나운서연합회장



박찬숙 부회장



SBS 세내기 주시은, 이인권 아나운서



tbs 송정애 <송정애의 좋은 사람들>



1997년 PSB 부산방송 아나운서를 거쳐 2000년 tbs에 입사해 2014년부터 <송정애의 좋은 사람들>(FM 95.1 월~금 9:00~11:00)을 진행하며 청취자를 만나왔다. 분주한 출근길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친근한 목소리로 애청자들의 아침에 생기를 넣어준다.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 <오늘> 등 시사정보 프로그램, <2시가 좋다> <즐거운 운전석> 등 오락 프로그램, <좋은사람들> <들락날락 라디오> 등 음악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한 전전후 아나운서이다.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내레이션 프로그램이 사랑하는 아나운서이기도 하다. 2010년 한국아나운서대상 라디오진행상을 수상했다.

꾸준하게 진심을 담은 방송 선배들로부터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

'아나운서클럽에서 곧 연락할 것'이라는 귀뜸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때문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뜻밖의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얼떨떨하다 금세 부끄러워졌습니다. '깜냥이나 되는 건지...' 싶은 마음이 땅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1997년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딱 20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만큼 왔는지도 모르게 훌쩍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방송을 특히 라디오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이 지켜왔습니다. 화려하게 빛

나지는 않아도 꾸준히 진심을 담은 모습을, 다름 아닌 아나운서 선배님들이 인정해주신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아나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 녹여내는 친구 같은 아나운서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연륜이 쌓일수록 찾는 사람이 많은 방송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되는 2017년입니다. 부족한 그릇이나마 부지런하게 닦아 정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이리 야유회

“헤이리로 추억 여행 다녀왔어요”



최만린 고문은 동화정모공원 앞에 위치한 집이 북쪽을 향해 자리 잡은 이유에 대해 “묘지를 바라보면 아름답다. 속세의 인간들이 아우성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문을 연 뒤, “전시회도 아니고 자기 집 구석 보여주기 싫스럽지만, 마음껏 느끼시라.”라며 집안 곳곳을 안내했다.

개성공단에서 의뢰받은 작품과 똑같이 만든 조각 옆 목련 앞에서 최 고문은 “북향화北向花인 목련처럼 북쪽을 향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북의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다. 방송이나 조각이나 ‘인간과 생명의 뿌리인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최 고문의 해설과 함께 조각의 결실을 둘러보니 수행자처럼 걸은 예술가의 삶이 송고하게 다가왔다.

이어 근처 한식당에서 김규홍 부회장 사모님이 준비한 경품 제비뽑기도 하며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0분에 황인용 회원이 최고의 음향기기를 갖추고 운영하는 최고의 음악감상실로 이동했다. 2005년도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인 조병수 건축가의 ‘황인용 뮤직스페이스 카메라타’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찾아 주셔서 떨린다.”라고 인사한 황 회원은 3시 2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명DJ였던 1970년대로 돌아간 듯 <내 인생과 음악>이란 주제로 시간 여행을 이끌었다.

하모니카 연주 ‘센티멘탈 저니’로 시작해 자신을 짝사랑하던 초등학교 친구가 즐겨 불렀다는 ‘예수의 소

악곡’, 50년대 방송 <수요일 밤의 향연> 시그널 뮤직 ‘어텀 리브스’, 조카 따라 파주에 놀러온, 훗날 아내가 된 여대생 앞에서 자신이 불렀던 ‘오 테니 보이’. 1938년에 녹음한 진정한 아날로그의 자연스러운 소리 ‘한 송이 들국화 같은 제니’, 1964년 제작 임국희 회장의 시낭송 음반 중 ‘운동주 시 별 헤는 밤’, 정홍숙 회원의 기증 음반 중 ‘루나 로사’ 등 8곡을 소개하며 모두를 추억에 잠기게 했다.

카메라타에서 70년대 음악 시간 여행
모두 마음을 열어 추억에 남는 날
타임캡슐 타고 헤이리 방송국 다녀가는 듯

회원들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김규홍 부회장의 명품 사회로 각자의 소감을 나누었다.

임국희 회장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마음을 연 것 같아 추억에 남는 날이 되었다.”고 말했고, 황우겸 고문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는, 참으로 부담 없고 편안한 시간이었다.”라며 “모임이 오래 지속되려면 회비 잘 내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인태 부회장은 “타임캡슐을 타고 헤이리방송국에 다녀가는 듯, 호강하고 간다.”, 이보길 회원은 “참 즐거

운 시간이었다. 이런 기회가 가끔 있었으면 좋겠다.”, 안희재 회원은 “회장님과 운영위원들에게 모든 회원들이 감사의 마음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백연숙 회원의 벗이자 최 고문 사모님(성우 김소원)과 가까운 사이인 성우 장유진 씨는 “함께해서 행복했다.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겠다.”, 춘하추동방송 이장춘 운영자는 “오늘 카메라타에서 방송인이면 다 추억에 잠겼을 것이다. 특히 황인용 씨가 거론한 1958년 4월 <수요일 밤의 향연>을 오늘 함께하신 운영중 선배가 진행하셨다. 참 감명 깊은 날이다.”, KBS사우회 김광일 부회장은 “나는 e-아나운서로서 사진 많이 찍었다. 편집해서 보내고 블로그에 올려 유명인과 친하다는 걸 자랑하겠다.”라고 말했다.

KBS TV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 유엔 무대에도 서고 지난 3월 24일 서초구민회관에서 공연한 바 있는 청춘합창단원 조석영 회원이 지오다노의 오페라 페도라의 아리아와 가곡을 불렀다. 또한 이규향 회원은 “오늘 한 편의 흑백영화를 보았다. 엘리너 루즈벨트가 즐겨 인용한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가 떠오른다. 선배님과 동지들은 오늘 24로 하루를 마감한다.”라며 자신의 히트곡 <네잎클로버>를 불렀고 회원들과 함께 가곡 <사우>를 합창하며 봄철 야유회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 ① 세계적인 스피커를 갖춘 황인용의 카메라타
- ② 임국희 회장의 1964년도 시낭송 음반
- ③ 이규향 회원의 ‘네잎클로버’ 열창
- ④ <수요일 밤의 향연>을 진행했던 운영중 회원과 민병연 회원
- ⑤ 경품 추첨은 즐거워요. 김규홍, 차인태 부회장



방우회 주최 2017 첫 방송터 기념식 90년 전 첫 방송한 마음의 고향

첫 방송터 기념식이 4월 22일 오전 11시 20여 명의 방송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정동 덕수초등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한국방송인동우회(방우회) 한영섭 회장은 기념사에서 "여긴 90년 전 경성방송국이 세워지고 호출부호 JODK로 방송을 시작했던 곳이다. 해방 후 중앙방송국 연주사로 사용되다가 6.25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방송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기에 방우회가 이 자리에 유허비를 세우고 매년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특히 방우회 문시형



제2대 회장이 유허비 건립에 힘을 기울이셨고 사재를 털어 기념비를 제작하느라 애쓰신 분은 50년대 아나운서를 하시다 서울대 미술대학장을 지낸 우리나라 최고의 조각가 최만린 교수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우회 부회장인 아나운서클럽 전영우 고문이 초창기 방송야화를 들려주었다.

방송 초기 기술부 노창성의 처인 이옥경 아나운서 한 사람으로는 감당키 어려워 새로운 아나운서를 공개모집했는데 20명이 응시, 조선어 아나운서로 마현경이 합격했다. 마현경은 방송부원 최승일의 처로 두 쌍의 부부 방송인이 있었던 것이다. 무용가 최승희의 오빠인 최승일은 "청년문사靑年文士"로 명성이 높았던 문인, 연예인, 아나운서 등 다방

면에 소질이 있어 노창성과 같이 우리나라 방송 초창기의 개척자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다.

개국 당시 시보 장치는 아주 원시적이었다. 손으로 태엽을 감아주는 시계를 보며 아나운서가 차임을 쳐 시간을 알리면 그 차임벨에 맞춰 세종로 소방서의 사이렌이 작동해 서울시민에게 정오를 알려주었으니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인 셈이다. 한 근시 아나운서가 시간을 오독하고 두 번 차임벨을 때려 정오 사이렌이 두 번 울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개국 당시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뉴스는 오후 3시 50분과 7시, 하루 두 차례 방송했다. 주식과 곡물시세 등을 하루 11회나 방송한 기록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자가 없었던 시절이라 통신에만 의존했고,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뉴스의 주소재로 삼았던 시대적 배경을 말해준다. 천기예보와 주식과 곡물시세 등은 인천에 있는 거래소에서 무료로 방송 자료를 전화로 제공해주었으므로 여러 번 방송할 수 있었다. 요리강습과 일용품 시세를 각 한 번씩 방송하고 하루 한 편의 연예, 오락방송과 하루 한 번씩 강연을 편성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 후 유허비를 돌아보고 점심을 먹으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춘천MBC 이승현 아나운서 마케팅대상 기업가정신상 수상



춘천MBC 이승현 아나운서가 3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마케팅대상'에서 개인 부문 기업가정신상을 수상했다.

한국마케팅협회 주관 마케팅대상에서 이승현 차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진행뿐 아니라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기획, 연출, 지역방송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지속해서 혁신적인 고객 가치를 추구해 나간 점을 인정받았다. 2005년 전주MBC를 거쳐 2007년 입사한 이승현 아나운서는 현재 <뉴스데스크 강원> 앵커, <저녁의 인기가요> 제작·진행 중이다. 다큐멘터리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 연출로 2014 방통위 방송대상 라디오부문 우수상, 다큐멘터리 '꿀벌의 경고' 연출로 2016 방통심 위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표준국어대사전 추가, 수정 내용 (6월 3일 국립국어원 발표)

'주책맞다', '주책스럽다', '여쭙보다', '그거참', '아침내', '동주민센터', '분리배출' 표준어 추가.
'지구상', '지도상', '교각하', '선반하' 등 접미사 '상', '하'사용 가능.
명사 '외국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아직 국어로 정착되지 않은 말이라는 뜻 더해짐. 동사 '차오르다'는 물 따위가 공간을 채울 때는 물론 감정 따위가 마음속에서 점점 커질 때도 쓸 수 있음.
외래어인 '다운'에서는 가격, 비용, 수량, 능률, 출력 따위가 내리거나 줄어든다는 뜻이 삭제. '가격 다운'은 '가격 내림', '가격 인하' 등으로 바꿔 써야 하나, 감정이나 기력이 저조한 상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 등엔 사용 가능.



방 | 송 | 가 | 소 | 식



2017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4월에 9개월 대장정 돌입



KBS가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펼치는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올해는 4월 17일 서울 목동중학교에서 이승현 아나운서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9개월 동안 전국 40개 초등학교와 70개 중학교 등 총 110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안녕 우리말, 마음으로 말해요'를 주제로 실질적인 대화 방법을 다루는 한편 퀴즈와 역할극 등 방송 프로그램 형식을 다수 차용해 강의에 대한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안녕 우리말, 마음으로 말해요'의 주제에 맞게 강의 교안과 인기 가수 '러블리즈'와 아나운서들의 인터뷰를 직접 담은 동영상 자체 제작, 또래 학생들이 사이버 언어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는지 실제 학생들의 인터뷰를 촬영해 들려줌으로써 공감을 이끌어냈다.

어린이날 특집 어린이 말하기왕 선발대회 개최



KBS 아나운서실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어린이날 특집 <KBS 어린이 말하기왕 선발대회>가 5월 2일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KBS 인터넷, 모바일 MY K로 생중계된 가운데 열렸다.

<안녕, 우리말> 동영상 소재로 인터넷 예심을 통과한 15명의 어린이들이 100초 동안 말하기를 겨룬 이날, 본선 참가자 중 유일한 남학생이었던 서울동북초등학교 5학년 안예현 학생이 '비속어와 줄임말은 쓰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고, 금상은 부산 송수초 배예지, 서울돈암초 이현지, 구리구지초 임성주, 광명철산초 정세운 학생에게 돌아갔다. 대상 수상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금상 4명에게 KBS 사장상, 그리고 은상 10명에게 KBS 국어문화원장상이 수여되었다.



인도네시아에 한류전문채널 SBS-IN 개국



<K-pop 스타>, <정글의 법칙> 등 SBS 프로그램들을 인도네시아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한류 콘텐츠 전문 채널 'SBS-IN'이 3월 27일 개국했다. 개국에 앞서 20일 최기환 아나운서(사진 중앙)가 SBS 인도네시아 채널 'SBS-IN 개국 발표회 및 스타일팔로우' 제작 발표회를 진행했다.

6월 1일 프로그램 개편으로 진행자 이동



6월 1일 개편을 맞아 <좋은 아침>에서는 김환 아나운서를 대신해 박찬민 아나운서가 기존의 최기환, 김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또 김주우, 윤현진, 최영아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SBS 생방송 투데이>는 최영아, 김환, 김선재 아나운서가 맡는다.

정석문, 김선재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프로야구 중계석>의 여 MC가 박은경 아나운서로 교체되었고, 김지연, 김주우 아나운서가 MC를 맡았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유혜영 아나운서(사진)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신입 주시은 아나운서가 김선재 아나운서를 대신해 <모닝와이드> 코너 '세계는 지금'에 투입되었다.



이재은 새 MC로 발탁 <섹션TV 연예통신>



이재은 아나운서가 가수 이상민, 배우 설인아와 함께 5월 21일부터 새롭게 단장한 <섹션TV 연예통신>의 MC를 맡았다.

이상민 편집장을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두 여성 에디터의 치열한 기획 경쟁이 판전 포인트이다.



김준호 앵커 맡아 <OBS뉴스 오늘>



김준호 아나운서가 주중 매일 낮 4시 40분부터 1시간 생방송 <OBS뉴스 오늘>을 진행한다. 그날의 주요 뉴스 5개 중 정치, 시사, 정보 등 다양한 주제 가운데 3가지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울산 박나은 전복 이은혜 입사



울산CBS에 박나은, 전복CBS에 이은혜 아나운서가 입사했다.

아나운서 프로그램 부분 조정

김은영 부장이 조이포유 채널 <찬양의 숲> 제작·진행, CBS 라디오에서는 김운주 아나운서가 <오후의 향기> 진행, 백원경 아나운서가 <가스펠 아이>를 제작·진행한다.

박재홍 재능기부로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감사패 받아



박재홍 아나운서가 4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APA(Asia Philanthropy Awards, 아시아박애상시상식)'에서 APA위원회(이사장 김성수 주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재능기부로 APA와 함께했던 박재홍 아나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PA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시아의 숨은 영웅을 기리기 위해 푸르메재단 등 비영리 분야 전문가 70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2015년 제정한 상이다.

<유쾌한 만남> 특집 공개방송 '트럭 운전자 노래자랑 대회' 진행



<나선홍, 김미화의 유쾌한 만남>이 4월 27일 일산 킥스 전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2.5t 이상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쾌한 트럭운전자 노래자랑'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유쾌한 노래자랑' 코너에서 2차 예심을 통과한 운전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초대가수 트로트 4인방, 박상철, 박현빈, 홍진영, 윤수현이 출연해 유쾌한 무대를 이어갔다.

tbs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 <나선홍, 김미화의 유쾌한 만남>은 tbsFM 라디오에서 매일 오후 4시~6시에 만날 수 있다.



KBS교향악단 <실비아 홍 초청 극동방송 희망음악회> 개최

5월 12일 오후 8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 피아니스트 실비아 홍 초청 <극동방송 희망음악회>가 남현용, 권세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렸다. 실비아 홍과 KBS교향악단의 협연, 실비아 홍과 마이클 렉터 부부의 피아노 듀오 연주, 안산시립합창단과 영락교회 갈보리성가대 연합합창단이 화합과 희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었다.



휘튼대학합창단 내한 공연 음악적 풍성함과 감동 선사

미국 휘튼대학교 합창단 초청 콘서트가 5월 13일 오후 3시와 7시, 극동아트홀에서 김보령, 조안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렸다. 정통 미국 가스펠과 유럽의 찬양곡을 통해 합창의 진수는 선보인 이번 공연은 많은 관객들에게 음악적 풍성함과 감동을 선사했다.



라디오 창립 29주년 맞아 <fun fun 진행열전> 방송

창립 29주년을 맞아 5월 15일 각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는 <cpbc FM의 Fun Fun한 진행열전>을 방송했다. 클래식 소통하는 <fm 음악공감(월~토, 09:00~11:00)>의 1부는 <11시가 좋다>의 신의석 아나운서가 맡았다. 또 2부는 <우리는 코이노니아(월~금, 16:00~17:00)>의 이나래 아나운서가 진행했다. <fm 음악공감> 김슬애 아나운서는 김지현 아나운서와 함께 <한낮의 가요선물(월~금, 12:00~14:00)>을 진행했다. 한편 <음악이 있는 저녁풍경(월~일, 17:00~19:00)>의 이정민 아나운서는 <그대에게 평화를, 박명선입니다(월~금, 14:00~16:00)>를 맡았다. 이 날 특집은 평소보다 3, 4배 넘는 메시지 수를 기록할 정도로 청취자의 뜨거운 참여 속에 방송되었다.

이나래, 자원봉사 홍보대사 위촉



왼쪽부터 이길재 신부, 이나래, 박마루, 오창섭

이나래 아나운서가 방송인 박마루와 함께 자원봉사 홍보대사에 위촉되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오창섭)는 4월 19일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거행했다. "가톨릭평화방송이 전하는 따뜻한 소리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나래 아나운서는 "한국 자원봉사의 해"(2016~2018)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슬애 안양과 포천에서 군부대 위문공연 진행



김슬애 아나운서가 지난 5월, cpbc 주관으로 두 차례 열린 군장병 위문공연을 진행했다. 5월 16일 안양에서 군장병 등 3,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2017 수도군단과 함께하는 군장병위문공연>은 나인뮤지스, 깁스, 소녀 등의 무대로 꾸며졌다. 이어 5월 28일 포천에서 열린 <8사단과 함께하는 군장병위문공연>에서는 걸그룹 오마이걸, 박상민 등과 함께 군장병을 응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cpbc와 함께하는 군장병 위문공연은 고양, 용인, 양주 등 다양한 군부대를 중심으로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눈초 이규항의 발음 이야기 16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뉴스를 말씀드리죠 / 드리겠어요

- 존댓말(아주 높임, 두루 높임) / 평대平待 / 하대下待

방송 프로그램의 클로징 멘트에서 "안녕히 계세요."라고 할 수도 있으나 "존칭선어말어미尊稱先語末語尾"인 '시'를 붙여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요, 죠'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우며, '습니다'는 딱딱하다고 오해하는 방송인이 많다.

- ① 신혜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 ㉡'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 ② 베토벤의 ㉢'로망스'였어요. / ㉣'로망스'였습니다.
- ③ 오는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 ④ 뉴스를 ㉦말씀드리죠. / 말씀드리겠어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예문에서 ①, ②, ③의 ㉠은 문법적으로 친밀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중한 맛이 없는 것은 물론 어색하기도 하며 ④의 ㉦은 있을 수 없는 어법이다.

필자의 사견으로 곡목을 소개할 때, 가요는 '요, 죠 / 습니다'를 복수종결어미로, 명곡은 '습니다.'(아주높임)로 하는 것이 격조는 물론 자연스럽다. 또한 '요'가 연결어미인지 종결어미인지 분간할 수 없게 쓰이고도 있다. '오늘 서울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입니다.'는 '-데요.'가 종결어미라면 '합니다'로, 연결어미라면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1960년대만 해도 초등학교생이 등교할 때, 부모님들

은 자녀에게 반드시 "학교 다녀 오겠어요."가 아니라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라고 가르쳤다.

또한 자기의 생각이 불확실하거나 단정하기 어려울 때 쓰이는 '같아요.'가 "맞는 것 같아요. / 좋은 것 같아요."처럼 거의 모든 종결어미에 쓰이고 있다.

아나운서실에서 교양강좌를 마친 강사에게 필자가 "교수님께서 말씀마다 '같아요'를 쓰시는 습관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더니, "네,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의 말투를 따라 '같아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듯이, 언어의 세계 역시 불변의 규범이 있는 법이다.

일본 NHK의 아나운서 교육 커리큘럼은 50년 전과 같다고 한다. 무뎠던 운전자의 차가 거리를 활주하는 도시는 상상할 수 없다. 방송 언어 교육을 단 1시간도 받지 않은 방송진행자의 방송 참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송 풍토의 적폐積弊는 과연 언제쯤 청산될 수 있으며,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아무리 방송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방송의 출연자가 될 수 있으나 아무나 진행자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번 글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현명한 독자 여러분에게 맡기며, 한 번쯤 짧은 시간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회 | 원 | 동 | 정

화법계의 태두 전영우 고문 회흔례 기념 회상기 <화법에 대하여> 출간

작년에 회흔례를 맞은 전영우 고문이 최근 자전적 회상기 <화법에 대하여>(소명출판)를 펴냈다. 말(語)을 사랑했던 한 인물의 회고록을 통해 한국 화법 교육이 어떻게 체계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책이다.

서울대 사범대학 중 교생 실윤 규수와 혼인, 입사 후 DBS를 운서로 살던 30년 수원대 국어가 되어 학자로 30년 인생, 화법과



국어교육과 재습 이야기부터 1954년 KBS 거치며 아나운서 세월, 1983 국문학과 교수서 살아온 30

예절 등 한 평생 기억할 만한 순간들을 123개 항목으로 엮었다. 발음사전을 비롯해 고교와 대학 화법 교재를 저술한 전영우 고문은 학술논문집 '신국어화법론'도 완성해 국어교육계의 큰 관심을 모았고, KBS 한국어연구회(1982)와 한국화법학회(1998)를 만든 화법학계의 태두이다.

역저 <0의 행복> 일본에서 2판 발행



이규형(전 KBS)

지난 3월 <0의 행복>(제로노 시와와세) 일본어판 제2판이 나왔다. 국내에서 2008년 초판 1쇄 발행 후 2011년 9쇄가 발행되었고, 불교국가인 일본에서 2011년 초판이 발행된 지 6년만이다.

저자는,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까닭은 '붓다의 깨달음을 0과 밥맛을 Keyword로 풀어낸 획기적인 불서佛書! 불교는 종교와 철학 양 날개의 비행기'라는 책 표지의 소개말처럼 오늘날까지 중국이나 일본 불가佛家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명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천주교 신자인 비불자非佛者의 책이 일본에서 출간되었다는데도 만족하지만 그보다는 아나운서 출신의 저서라는 데 더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제2회 수채화 개인전 개최



안주희(전 MBC)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성남시청 2층 공감갤러리에서 제2회 개인전을 열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10여 년 전 붓을 들고 '우주의 중심인 사람'을 주제로

수채화를 그려 첫 전시회를 연 이래 3년 만의 일이다. 안 회원은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을 그리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

차인연합회 사무총장

명륜당 뜰에서 차의 날 축제 진행



전우백(전 KBS)

5월 25일 오전 11시 명륜동 성균관 명륜당에서 제37회 차의 날 기념식 사회를

보며 축제를 이끌었다. 행사는 기념식, 올해의 명다기 시상 및 차문화 명인패 수여, 두리차회 헛차 시음(사진)으로 진행되었다.

KBS TV 초대 아나운서실장 황우겸 고문 현역 후배들 격려



왼쪽부터 한상권, 유지철, 김관동, 박은영, 황우겸, 오우경, 김진희, 김규홍

황우겸 고문이 김규홍 부회장과 함께 4월 4일 여의도 KBS 아나운서실을 방문해 김관동 아나운서실장과 유지철 부장

등 현역 7명에게 오찬을 베풀며 격려했다.

전 미주한인방송협회장들 LA 오찬에 이어 모국 방문해 아나운서클럽 실무진과 간담회



홍우창(전 TBC)

(사)미주방송인협회 제25대 회장에 취임한 홍우창 회장은 6월 9일 LA에서 전임 회장들과 오찬 모임을 열고 협회 발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올해 초 제25대 회장에 취임한

홍우창 회장은 "제21대 회장에 이어 다시 한 번 미주 지역 방송인들을 아우르며 기쁜 마음으로 여력을 쏟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서울을 다녀온 송현식 회원으로부터 고국 소식을 들으며 환담을 나누었다.

홍 회장은 1976년 TBC 입사 후 1979년 LA지사 아나운서를 거쳐 1983년부터 1985년까지 KTE와 미주 중앙일보사에서 근무했고, 2006년 캘리포니아 부동산 뉴스 전문 CRN-TV를 설립해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사업차 모국을 방문한 홍 회장은 6월 15일 아나운서클럽에 황우겸 고문, 맹관영, 김규홍, 황량, 박민정, 황인우 회원과 춘하추동방송 이장춘 운영자 등을 만나 미주방송인 협회와 아나운서클럽의 유대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숙명여대방송국 50주년 기념식 박민정 이금희 이명희 등 후배 격려



중앙 위로부터 이금희, 박민정, 이익선

숙명여대교육방송국(SBS) 개국 50주년 기념행사가 4월 20일 청파동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SBS 동문회인 스노우회(회장 전찬희) 출신 아나운서클럽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을 비롯해 최영미(전 KBS), 이금희(전 KBS), 이명희(CBS), 정현경(전 EBS)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출신 이익선 MC 등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1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해 SBS의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을 응원했다.

이제 70대가 된 큰언니부터 갓 스물이 된 대학 새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후배가 한 목소리로 SBS에서 보낸 20대 초반의 열정이 삶을 바꾸는 한 획이 되었다고 말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숙명여대교육방송국(SBS)는 같은 사명을 쓰게 된 인연으로 SBS로부터 방송 기자재를 지원받는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글 / 이명희(CBS)

KBS사우회 여성위원회 김주혜 고문 초청으로 원주 나들이



왼쪽부터 김주혜, 김윤한, 황인우, 이인숙, 김규은 회원과 KBS사우회 회우들

KBS사우회 여성위원회 김주혜 고문의 초청으로 이인숙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은, 황인우, 회원 등 10명이 4월

17일 봄비 속에 강원도 원주에 다녀왔다. 김주혜 고문이 승합차를 대절, 토지문화관, 치악산 구룡사, 강원감영 등 관광과 식사 일체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고향에서 치악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윤한 회원이 저녁을 내 즐거움을 보태주었다.

임국희 회장과 회원들 양재천 벚꽃길 산책



4월 10일 임국희 회장을 비롯해 김규홍 부회장, 김규은, 조길자, 채영신, 황인우 회원이 벚꽃이 만발한 서울시민의 숲 양재천길을 걸으며 화창한 봄을 만끽했다. 춘하추동방송 이장춘 운영자의 초대로 이루어진 자리였다. 그동안 춘하추동방송 블로그 방문자 중 임국희 아나운서의 근황을 알고 싶다는 분들의 요청에 따라 이장춘 운영자가 아나운서클럽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겸 양재천 인근에서 점심을 내고 화창한 봄날! 꽃길을 걷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성신여대방송국 성신언론인회 초청 특강 신은경 황인우 이명숙 박지현 등 참여



중앙 왼쪽부터 이명숙, 박지현, 신은경, 황인우

성신여대 교육방송국(SEBS) 주최 성신언론인회(회장 신은경) 초청 강연회

가 3월 30일 동선동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열렸다. 60명의 언론계 지망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릴레이 특강에서 청소년활동콘텐츠진흥원 신은경 이사장(전 KBS)이 축사로 후배들을 격려했고, 지리과 졸업생 박지현 아나운서(원주 MBC), 성악과 출신 오페라 해설가 윤정인(윤성원 회원 딸, 사진 오른쪽) MC가 연사로 나서 '끼, 갠, 꿈, 풀, 피, 끈, 끈' 등의 비밀을 풀어내 큰 호응을 받았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SEBS 출신인 아나운서클럽회보 황인우(전 KBS) 편집장과 TJB 문화콘텐츠팀장인 이명숙 부회장(tjb) 등이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주었다.

한편 성신여대교육방송국장인 법학과 이양복 교수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동문들을 초청해 자주 강연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글 / 이명숙(TJB)

Zoom-in 유리디체아카데미 회장 정흥숙(전 MBC) 회원

좋은 사람들과 음악으로 힐링하며 사니 너무 행복해요

유리디체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오후 70여 명의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실아트홀에서 영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모임이다. 6월 13일 8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정흥숙 회장과 인터뷰 약속을 정할 때 정 선배가 다른 장소를 추천하셨다. “강동역사거리 남기세병원 지하 2층 이레아트홀에서 만나면 어떨겠냐?”라는 것이다. 오디오 시스템의 일인자가 설비한 최고의 진공관 사운드를 들어보라며, (주)코리아AV를 운영하는 홈시어터 디자이너인 이석환 회장도 소개하고 싶다는 말씀이었다. 경험해보고 나서 ‘좋다!’ 싶으면 열정적으로 전파하며 나누고자 하는 선배님답다고 생각하며 강동역으로 출발했다. 77세 희수이신데도 활력이 넘치는 선배님을 뵈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다’ 싶어 인생 모토를 여쭙봤더니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글 / 황인우(전 KBS) 편집장

- ▶ (화) 오후 2시 30분~5시 30분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세실아트홀 유리디체아카데미 (010-5225-0882)
- ▶ (1, 3 수) 오후 4시~6시 1호선 종각역 11번 출구 문화공간 온 최명우 클래식 수요일음악회 (02-730-3370)
- ▶ (토) 오후 4시~6시 30분 5호선 강동역 2번 출구 이레아트홀 이석환의 음악여행 (010-2959-0245)

참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다. 1주일의 일정이 궁금하다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에 이곳에서 예술의전당 음악회 모임 <뮤직 S&B>에 참여하고, 화요일은 2009년 시작한 ‘유리디체아카데미’로 종일 바쁘게 지낸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강남구 신사동 세실아트홀빌딩 지하 1층 세실아트홀(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선병철 지도교수의 해설로 열리는데, 6월 13일 창립 8주년 기념일에는 초대 손님인 바리톤 임준식 교수와 함께 70여 회원에게 뜻 깊은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수요일 오전에는 유화를 그리며 지낸다. 또한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에 종로구 인사동 문화공간 온(종각역 11번 출구)에서 열리는 <최명우 클래식 수요일음악회>의 회장도 맡고 있다. 입장료 1만 원을 내면 동아일보 기자 출신 최명우 음악평론가의 해설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음악감상 후 6시부터 7시까지 간단한 저녁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다. 둘째 목요일에 별도로 오페라만 다루는 라스칼라아카데미도 운영했는데, 화요일 유리디체 모임으로 통합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이곳 이레아트홀(강동역 2번 출구)에서 열리는 ‘이석환의 음악여행’ 운영위원으로 음악에 빠져 지내고 있다.

어떤 계기로 클래식에 심취하게 되었나?

언니가 음악을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즐겨 들었다. 이성삼, 이흥렬, 계정식 선생이 이끌던 목요일음악회란 음악클럽에 가입했고, 르네상스 음악감상실에 다녔다. 1961년 서울대 사범대 가정과 3학년 때 르네상스 매니저가 종로에 고급 뮤직홀 ‘메트로’를 차리고 클래식 DJ를 맡아달라고 해 팝의 최동욱 씨와 함께 팀을 이뤄 아르바이트를 했다. 최동욱 씨가 그래서 나를 최초의 여성 DJ라고 소개하더라.

경력을 소개해달라

DJ 활동 덕분인지 1962년 MBC 2기 아나운서로 합격했는데, 미주한인방송 창시자 김영우, 민창기, 조봉남, 김경준 등이 입사 동지다. 대학 2학년 때 미국 유학시험을 패스했던 터라 비자가 만료되기 전인 1965년에 미국 유학을 떠나 미시간주립대 의류학과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받고 연구교수로 일했다. 그러다 1974년 귀국해 모교



(주)코리아AV 이석환 대표

강단에 섰다가 1982년 중앙대 의류학과로 옮겨 2005년 정년퇴임했다. 「복식문화사(1981)」, 「서양복식문화사(1997)」, 「현대인과 의상(공저, 1998)」, 「패션 큰 사전(1999)」 등 저서를 냈고, 1988년 세종대에서 의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의로류학회 위원장, 한국복식협회 회장을 지냈고, 1988년과 1989년 두 차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복식 전시회를 여는 등 보람 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실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신데, 어떤 때 가장 기뻐나?

아나운서 합격했을 때다.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연구교수 자리를 얻었을 때도 참 기뻐다. 2005년 정년퇴임 후 낭연시암송회 회장으로서 음악감상회, 서울대동창회 신년하례식 등 모임에서 시를 암송, 지금까지 외운 시가 237편이다. 최근 이석환 회장과 부탁해 거실에 진공관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었다. DVD 보며 바느질하며 음악 듣고, 때때로 집에서 지인들을 불러 음악감상회도 연다. 좋은 음악과 시, 좋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것, 참 행복한 일이다.

이석환 대표 이야기도 들어보자. 어떻게 알게 되었나?

정흥숙 유리디체 임원에게 이곳 오디오 시스템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했는데, 들어서는 순간 사운드 효과에 가슴이 막 뛰더라. 이석환 회장의 해설도 좋고 인품도 좋아, 여기저기 알리고 다닌다. 이석환 회장이 가장 자연스런 재능을 창조를 목표로 레코딩도 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소리의 공간을 디자인했기에 다른 곳과 비교가 안 된다. 최고의 사운드로 음악에 몰입하며 힐링 할 수 있다. 이석환 기존의 음악 시장이 여럿 있는데 그 속성을 다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 각각의 차이점과 특성을 부각시켜주는 정 교수님 같은 분을 운영위원으로 모셨으니 운이 좋다. 정흥숙 교수님은 오랫동안 음악감상회를 이끌어오신 경험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파하는데 속도가 빠르고 임팩트가 있다.

영상음악감상회를 여는 이유는?

이석환 해외를 돌아다니며 오랫동안 모은 자료를 공유하며 문화 속에서 발생한 음악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때론 발레나 영화감상도 하고, 대중음악을 다룰 때도 있다. 나는 해양대 기관학과 출신의 음향 엔지니어이다. 1994년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추천받아 <스타 워즈>의 조지 루카스 필름에서 우주적인 사운드를 창조하기 위해 개발한 THX 교육을 받



- 1961년 뮤직홀 메트로에서 최초의 여성 DJ 활동
- 1962~1965년 MBC 아나운서
- 1966년 미국 미시간주립대 의류학과 입학
- 1969년 석사학위 받고 연구교수로 재직
- 1974년 귀국해 서울대대학원 강사를 거쳐
- 1982~2005년 중앙대 의류학과 교수, 가정대학장 역임
- 1988년 세종대 의상학 박사학위 취득
- 한국의로류학회 고문, 한국복식협회 회장 역임

았다. 1999년엔 미국 가전 홈시어터 디자이너협회의 CEDIA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홈시어터에 대해 공부할수록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다. 1998년 명동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이곳 길동사거리에서 음악 인구를 늘리기 위해 회당 1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음악감상회를 열고 있다. 그간 알게 된 분들이 훌륭한 일이니 돕겠다며 후원해주시는 덕분이다.

영상시대에 맞게 눈으로 보고 들으면 시야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특히 오페라 같은 것은 이해도에서 천지 차이가 난다. 최소 비용으로 즐기는 세계 최고의 음악감상회라 말할 수 있다.

정흥숙 매주 4, 5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지난 6월 3일엔 내가 소개한 사람 10명이 함께했다. 사마르칸트 외국어대 러시아어과 교수이자 한국어과 학과장인 엄안토니나 파보로브나 주임교수 초청, 구소련 붕괴 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정체성과 미래상>이라는 특별 강연이 있었다. 휴식 시간 후 이석환 회장의 <데카사운드의 향연>이라는 음악 강의가 이어졌다. 다방면에 해박한 이 회장의 해설에 인문학 강연까지 들을 수 있으니 모두 만족스러웠다. 이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음악 들으며 주말을 멋지게 보내고 싶다. 강력 추천한다.



그리움



작가 안주희(전 MBC)

고맙습니다

6월 10일까지 입금순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분



황우겸(전 KBS)



차인태(전 MBC)



정흥숙(전 MBC)



이보길(전 TBC)



이승현(춘천 MBC) 20만 원



윤성원(전 KBS)



이성화(전 TBC)



백연숙(전 MBC)

황우겸 고문 20만 원 등 회원 7명이 헤이리아우회에서 클럽 발전 기금으로 모두 70만 원을 기탁했다.

축하합니다

성경환(전 MBC) 6월 4일 딸 헤리 양 혼사
김호성(KBS청주) 5월 28일 장남 기연 군 혼사
고창근(전 MBC) 4월 15일 장남 성민 군 혼사

김형철(KBS전주) 6월 3일 연구원과 혼인
조은유(OBS) 5월 20일 금용인과 혼인
김나진(MBC) 김해지(tbs) 3월 27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박경추(MBC) 6월 9일 장모상

양진수(전 MBC) 5월 18일 모친상

KEB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 알림 |

수필

아나운서들의 헤이리 나들이

황우겸(전 KBS) 고문

32명의 아나운서들이 모였다. 현역이면 이 정도 모임은 1년에 한 번 전국 아나운서대회 이외에는 어렵다. 퇴직 후에도 아직 많은 이들이 프리랜서로 종사하기에 쉽지 않은 모임이다.

전직 아나운서 선배들이 정을 다지고 나누고 그리워하는 나들이길, 버스 한 대를 대절해 찾아간 곳은 산도, 강도, 바다도 아닌 테마가 있는 예술마을 헤이리이다. 임진강 건너편 파평 윤씨 집성촌 인근 15만 평에 자리한 약 300채의 개성적인 건물에서 문화예술인이 살고 있는 곳이다.

먼저 KBS 후배로 서울미대 학장과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지낸 최만린 고문의 전시장과 작업장을 찾았다.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상징물과 조각으로도 유명하다. 전시회때문에 작품을 반출해 행하더라도 집안 구석구석 가득 메운 수많은 작품을 보니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평생 쉬 없이 작업한 진정한 예술가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 TBC 아나운서 황인용 회원이 직접 설립,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타'에 갔다. 입장료 1만 원을 내면 차와 케이크를 들며 신청곡도 들을 수 있는 뮤직스페이스다. 물론 우리 회원들은 무료입장이었다. 황인용 회원은 방송을 그만둔 지 1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송 열정과 입담, 해박한 음악지



왼쪽부터 조영숙, 전찬희, 박민정, 전옥수, 황인용, 황우겸, 이보길, 이해옥, 정흥숙

식으로 음악애호가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감성을 자극해준다. 50년대 방송 시그널뮤직, 그리고 놀랍게도 60년대 임국희 아나운서의 시낭송 음반을 들려주며 모두를 감격케 하니, 각자 현역 시절을 그리워하는 회고담이 만발하였다.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는 정흥숙 회원의 시 암송, 고정희의 '지울 수 없는 얼굴'을 들었다. 정 교수는 230수 이상의 시를 암송하며 매주 도처에서 음악감상회를 이끌고 있다.

바른말 고운 말 전도사 이규향 아나운서는 아직도 아카데미에서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음반을 내고 신인 가수상까지 탄 프로 가수로서 자신의 왕년의 히트곡 '네잎클로버'를 불러 또 한 번 추억에 흠뻑 빠지게 하였다.

더욱이 모든 행사를 기록하며 춘추동방송 블로그에 올리는 우리 명예회원 이장춘 전 국장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예전 방송 제목과 년대 등을 정확히 일깨워주었다.

나는 여러 단체에 관여하고 있지만, 다재다능한 후배들과 함께하는 이 모임에서 많은 감동을 받는다. 아나운서클럽은 참으로 좋고 사랑스러운 아나운서들이 부담 없이 모여 추억과 정을 나누는 모임이다.

인간은 추억이 없으면 건조하고 공허해서 무슨 재미로 살까? 인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은 개성이 강해 한데 역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서둘러 1991년에 아나운서동우회를 창립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보람을 느꼈다.

지금껏 이 모임의 살림살이와 크고 작은 일을 빠짐없이 챙겨온 김규홍 부회장, 박민정 사무총장, 황인우 편집장, 이해옥, 채영신, 이형균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여러 후배 아나운서들의 노고를 떠올리면 참으로 고맙다. 모두에게 위로와 성원을 보내며, 클럽 운영의 책임을 맡아 지금껏 잘 이끌어온 역대 회장단과 임국희 회장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아나운서로 30년
대학교수로 30년

화법 인생 전영우의 123가지 토막 이야기

우리나라는 예부터 말을 조심히 다루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가기도 하고, 천 냥 빚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어렵게 여기고 침묵이 미덕이라 생각해 왔다. 이러한 계층에 저자의 화법관련 연구와 활동은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화법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서이자 '말(言語)'을 사랑했던 한 인물의 회고록이다. 또한 유치진, 박종화, 피천득 등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유명 인사들과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한 시대의 역사와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영우 이야기
화법에 대하여



전영우 全英雨, Jeon Yeong-Woo

서울 출생, 경북고교 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문학박사, 경기고 교사, KBS 아나운서실장, 수원대학교 인문대학장,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사를 지냈고, 최근까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냈다. 저서로 『스피치개론』(1964), 『화법원리』(1967), 『국어와법론』(1987), 『표준 한국어발음사전』(2001), 『회의를 잘하는 법』(2010), 『바른 예절 좋은 화법』(2015) 등 다수가 있으며, 동광연극상(1968), 서울특별시 문화상(언론부문, 1971), 외출상(실천부문, 1977), 한국언론학회 언론상(방송부문, 1991), 친원교육상(학술연구부문, 2007) 등을 받았고, 국민훈장 목련장(1982), 대통령 표창(1994) 등을 수상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15, 1층(란빌딩)
전화 02-585-7840 팩스 02-585-7848 email somyungbooks@daum.net